

INEX Market Insight (25.11)

라이선스를 넘는 기술은 없다 : VASP, 규제 기반 인프라의 핵심 자산

Editor: 김규태 tony@inexkr.com

Analyst: 김종현 kiri@inexkr.com

Summary

- ETF 시대 개막 :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확대로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 정규 자산군으로 완전 편입.
- 핵심 인프라 이동 : 기관 파트너 선정 기준이 기술 우위에서 라이선스 보유 및 규제 준수 역량으로 전환.
- 월가 IB 본격 진입 : JP모건·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IB가 ETF 지정참가회사(AP) 참여 및 직접 보유 물량 확대.
- 규제 회피형 CEX 한계 : 비인가 모델의 한계 노출로 글로벌 CEX들도 현지 규제를 준수하는 로컬 법인 체제로 전환.
- 한국형 규제 부각 : 엄격한 진입장벽 속 제한된 VASP 인가는 희소성 높은 규제 자산이자 신뢰의 척도로 기능.
- 진출 전략 표준화 : 자체 인가의 리스크로 인해 검증된 VASP와의 제휴가 가장 효율적인 시장 진입 표준으로 정착.
- VASP 인가 재정의 : 규제 중심 시장에서 VASP 인가는 비즈니스 생존과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경쟁 자산.

Key Issue

인엑스(INEX)가 주목하는 시장의 전환점 — '기술(Tech)'에서 '신뢰(Trust)'로

비트코인 현물 ETF 시대를 맞아 블랙록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는 기술적 우위보다 규제 준수 역량을 파트너 선정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있다. 코인베이스가 수탁 시장을 독점하고 골드만삭스가 AP로 참여한 사례는 제도적 안정성을 담보한 인프라가 전통 금융 자본 진입의 필수 조건임을 입증한다.

반면 FTX 파산과 바이낸스 제재는 내부통제 없는 성장의 한계를 드러내며 글로벌 CEX들의 규제 회피 전략 폐기와 '로컬 현지화'를 가속화시켰다. 이에 따라 시장은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해소한 인가된 로컬 거래소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테라 사태 등으로 혁신적인 코드만으로는 자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책임 소재가 명확한 규제 기반 서비스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엄격한 포지티브 규제 환경하에서 VASP 인가는 강력한 진입장벽이자 대체 불가능한 신뢰의 척도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사 및 대기업의 시장 진입 시 자체 라이선스 취득 리스크를 감당하기보다, 검증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춘 VASP와의 협업이 유일하고도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 될 전망이다.

1 시장 주요 이벤트

INEX 소식

인엑스, 법인회원 서비스 공식 출시...기업 간 거래 시장 공략 본격화 [\(전문\)](#)

글로벌

JP모건·DBS, 블록체인 토큰화 결제 인프라 공동 구축...24시간 온체인 송금 구현 [\(전문\)](#)

유로 MMF에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클래스' 도입...이더리움(ETH) 첫 거래 완료 [\(전문\)](#)

국내

정부, '원화 스테이블코인' 50억 인가제...은행급 규제 칼날 들어댄다 [\(전문\)](#)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이 주도한다 [\(전문\)](#)

디지털 자산

이더리움, 12월 3일 '푸사카' 업그레이드... 블록 처리량·L1 성능 강화 [\(전문\)](#)

카르다노 블록체인, 코드 결함으로 일시적 체인 분할...형식 오류 트랜잭션 원인 [\(전문\)](#)

규제

태국, 월드코인 '홍채 스캔' 중단 명령...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판단 [\(전문\)](#)

영란은행, 스테이블코인 규제 초안 발표...2026년 시행 목표 [\(전문\)](#)

Upcoming 주요 일정

일자	관련 자산	이벤트 내용
2025-12-03	ETH	이더리움 'Fusaka' 업그레이드
2025-12-08	BTC	Bitcoin MENA 2025 컨퍼런스
2025-12-11	-	미국 FOMC 기준금리 결정
2025-12-18	-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2025-12-19	-	일본 BOJ(일본은행) 금리 결정 미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2 인사이트

ETF 시대, 규제 기반 신뢰가 우선순위

2024년 1월 미국 SEC가 블랙록,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등 주요 자산운용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동시 승인하며, 디지털 자산이 합법적 투자 대상으로 제도권에 편입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았다.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 자금 유입이 가속화되며 총운용자산(AUM)은 천억 달러를 상회하는 규모로 확대되었고, 상당량의 비트코인이 미국 자본시장으로 편입되었다. 블랙록의 IBIT를 비롯한 주요 ETF들은 시장 내 지배적 위치를 확보하며 기관 투자자들의 디지털 자산 편입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2024년 5월 SEC는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 규칙 개정을 승인했고, 같은 해 7월부터 실제 거래가 시작됨에 따라 알트코인 시장으로 ETF 확산이 본격화되었다.

2025년에는 솔라나를 비롯한 주요 알트코인 ETF 승인 절차가 진행되며 제도권 편입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는 2025년 11월 기준 대규모 자금의 순유출입 변동성을 겪으며 기관 투자자들의 포지션 조정 국면을 경험하고 있으나, 신규 상장 ETF들은 초기 자금 유입을 기록하며 시장 다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퇴직연금 및 지수 추종 펀드를 포함한 전통 금융 자금의 진입 통로가 확대되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은 투기적 자산에서 기관 포트폴리오의 정규 자산군으로 전환되는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Date	Monthly Total Net Inflow(USD)	Cumulative Total Net Inflow(USD)	Monthly Total Value Traded(USD)	Total Net Assets(USD)
Nov 2025	-\$3.70B	\$57.48B	\$97.29B	\$116.20B
Oct 2025	\$3.42B	\$61.19B	\$137.70B	\$147.73B
Sep 2025	\$9.53B	\$57.77B	\$72.91B	\$150.77B
Aug 2025	-\$751.12M	\$54.24B	\$78.14B	\$139.95B
Jul 2025	\$6.02B	\$54.99B	\$91.63B	\$152.01B
Jun 2025	\$4.60B	\$48.97B	\$60.03B	\$134.11B
May 2025	\$5.23B	\$44.37B	\$73.91B	\$126.15B
Apr 2025	\$2.97B	\$39.14B	\$65.71B	\$108.58B
Mar 2025	-\$767.91M	\$36.17B	\$57.06B	\$93.17B
Feb 2025	-\$3.56B	\$36.94B	\$61.96B	\$95.38B
Jan 2025	\$5.25B	\$40.50B	\$75.76B	\$119.66B
Dec 2024	\$4.54B	\$35.24B	\$83.42B	\$105.40B
Nov 2024	\$6.49B	\$30.70B	\$94.73B	\$105.28B
Oct 2024	\$5.35B	\$24.21B	\$46.26B	\$70.86B
Sep 2024	\$1.26B	\$18.86B	\$28.96B	\$59.08B

Figure 1. Total Bitcoin Spot ETF History (Source : soso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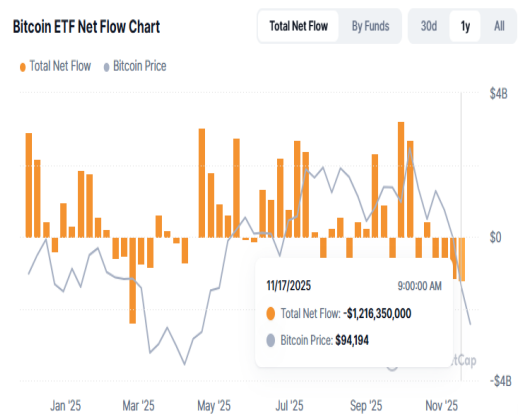


Figure 2. Bitcoin ETF Net Flow (Source : coinmarketcap)

블랙록 + 코인베이스 — 수탁 선정 기준은 규제 준수

ETF 승인 이후,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로 수탁(Custody) 서비스가 부상했다. 블랙록이 운영하는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신탁(IBIT)'의 수탁자로 코인베이스를 선정된 사례는 시장의 선택 기준이 기술적 우위에서 규제 기반의 신뢰성으로 이동했음을 증명한다. 현재 코인베이스는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의 대다수에 대해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며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전통 금융권이 코인베이스를 파트너로 선택한 결정적 이유는 규제 라이선스 보유와 SEC 감독 체계 내에서 운영되는 준법 이력이다. 기관 투자자에게 규제 리스크 최소화는 기술적 우위보다 우선되는 핵심 요건이다. 2024년 9월, Coinbase가 SEC에 제출한 Form 8-K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프라임 브로커 계약 수정안에는 퍼블릭

블록체인 주소로의 인출 요청 시 12시간 내 처리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는 ETF 운용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산 유동성 관리 및 리스크 통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 수준 약정으로, 수탁 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도적으로 높이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ii) *Section 2.2.* The below new sentence shall be added to Section 2.2.

For the avoidance of doubt, notwithstanding anything to the contrary in this Coinbase Prime Broker Agreement (including any SLAs associated therewith), while a Trade Credit remains unpaid, Client may make withdrawals of Digital Assets from the Custodial Account to public blockchain addresses provided that an amount equivalent to such Trade Credit is kept in the aggregate of the Borrower's Trading Balance and Vault Balance following such withdrawal. Subject to confirmation of the foregoing required minimum balance, Coinbase Custody shall process a withdrawal of Digital Assets from the Custodial Account to a public blockchain address within 12 hours of obtaining an Instruction from Client or Client's Authorized Representatives.

Figure 3. 블랙록-코인베이스 프라임 브로커 계약 수정안(SEC Form 8-K)

(Source: SEC Form 8-K Filing, Amendment to Coinbase Prime Broker Agreement, Sep 2024)

JP모건·골드만삭스 — 비트코인 ETF AP 참여로 제도권 진입

월가 투자은행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지정참가회사(Authorized Participant, AP) 역할을 수행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 진입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AP는 ETF 생태계에서 실물 비트코인을 매입·전달하고, ETF 지분을 발행 및 환매하는 핵심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로, 해당 상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JP모건은 2020년부터 코인베이스와 제미니 등 라이선스를 보유한 거래소에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반을 다졌고, 2024년 1월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와 동시에 제인 스트리트와 함께 AP로 선정되며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 인프라 간 협업 구조를 공식화했다. 골드만삭스 역시 2024년 3월 블랙록 IBIT의 공식 AP로 합류했으며, 같은 해 4분기까지 비트코인 ETF 보유량을 확대하며 단순한 중개자 역할을 넘어 시장의 주요 기관 투자자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월가 투자은행들의 시장 참여는 단순한 상품 출시를 넘어 인프라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심화되고 있다. 시티그룹, JP모건, 미쓰비시 UFJ 등 주요 글로벌 은행들은 지난 수년간 블록체인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집행해 왔는데, 이들이 선택한 협업 대상의 공통 분모는 명확히 규제 라이선스 보유 및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완비에 있다. 전통 금융권은 자체적으로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대신, 이미 규제 문턱을 넘은 검증된 인프라와 제휴하거나 지분을 투자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는 규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시장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즉, 월가는 직접 개발에 따른 규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기보다, 이미 검증된 파트너를 활용하여 즉각적인 시장 진입 효과를 누리는 실리적 접근을 택한 것이다.

골드만삭스의 사례는 이러한 시장의 구조적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020년 당시 "비트코인은 투자 자산 클래스가 아니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던 골드만삭스가 2024년 AP 참여 및 자산 편입을 단행한 것은, 디지털 자산이 월가의 투기적 대상에서 포트폴리오의 필수 자산군으로 격상되었음을 시사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제도권 자금 유입이 가속화되는 현 국면에서 시장의 경쟁 우위 요소는 더 이상 기술적 혁신성에 있지 않다. 오히려 규제 준수 여부와 투명성 확보가 기관 진입의 필수 조건으로 작용함에 따라, 향후 디지털 자산 시장의 패권은 컴플라이언스 역량을 갖춘 인프라 사업자를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Figure 4 & 5. 골드만삭스의 입장 변화 : 2020년 vs 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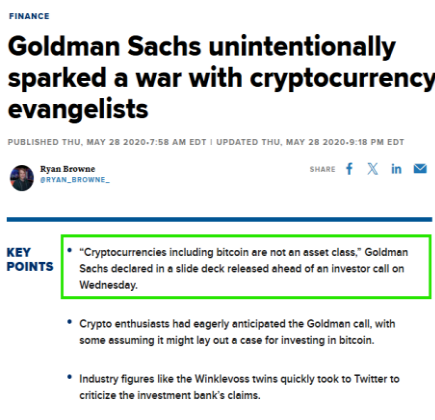


Figure 4. 골드만삭스, “암호화폐 자산 아냐” (CNBC, 2020.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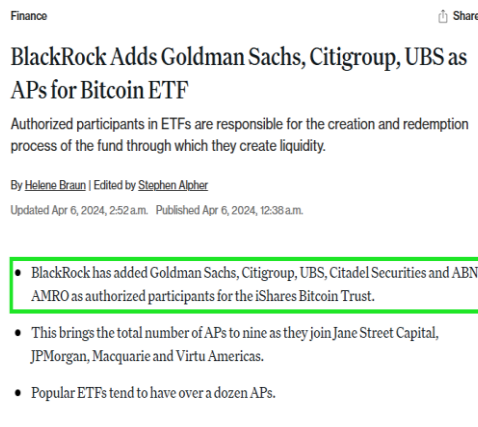


Figure 5. 골드만삭스, Bitcoin ETF AP 참여 (CoinDesk, 2024. 4)

글로벌 CEX 리스크의 재조명 — 규제 준수(Compliance),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

FTX 파산 : 고객 자금 유용과 내부통제 부재의 대가

2022년 11월 발생한 FTX 파산 사태는 가상자산 시장 역사상 가장 뼈아픈 거버넌스 실패 사례로 기록된다. 당시 세계 3위 규모를 자랑하던 FTX의 붕괴는 외부 해킹이나 기술적 결함이 아닌,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시스템의 부재에서 기인했다. 계열사 알라메다 리서치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고객 예치금을 무단으로 유용하고, 자체 발행 토큰(FTT)을 담보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기형적인 자금 운용 구조는 결국 천문학적인 부채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며 막을 내렸다.

이 사건은 글로벌 금융 당국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각인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의 규제 환경이다. 국내 VASP는 특금법 및 이용자 보호법에 의거하여 고객 예치금과 고유 자산의 분리 보관이 엄격히 의무화되어 있으며, 사업자의 자의적인 디지털 자산 발행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는 한국의 포지티브 규제 체계가 단순한 산업 진입 장벽이 아니라, FTX 사태와 같은 구조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강력한 안전장치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세계 최대 거래소도 규제 미준수 시 시장 퇴출 : '규모의 경제'를 압도하는 '규제의 칼날'

FTX가 내부통제의 실패를 보여주었다면, 바이낸스 사태는 아무리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라도 자금세탁방지 등 글로벌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2023년 창평자오(CZ) 전 CEO의 사임과 막대한 규모의 벌금 납부는 단순한 제재를 넘어, 규제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더 이상 기술 기업이 아닌 금융 기관 수준의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지닌 주체로 간주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2025년 들어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바이낸스의 미국 시장 재진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복귀를 위해서는 SEC와 CFTC의 엄격한 재승인 절차가 필수적이다. 이는 정치적 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규제 준수가 시장 진입을 위한 유일한 입장권이 되었음을 재확인시켜 준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시장은 거래량 경쟁에서 벗어나, 규제 리스크를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신뢰 자본 중심의 경쟁 구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규제 회피형 CEX의 지역 제한 강화 : 인가 기반 로컬 거래소의 부상

과거 국가 간 규제 공백을 활용해 단일 플랫폼으로 전 세계 유저를 유치하던 글로벌 CEX의 성장 모델은 2025년 현재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했다. 미국, 싱가포르 등 주요 금융 선진국들이 규제 그물망을 좁히면서 비인가 거래소들의 서비스 지역은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특히 2025년 7월, Bybit와 OKX가 EU의 MiCA를 준수하는 현지화 플랫폼을 출시한 행보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글로벌 단일 유동성이라는 이점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각국의 규제 기준에 맞춘 로컬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 해졌음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각국 라이선스를 보유한 로컬 거래소'와 '규제 사각지대에 머무는 비인가 거래소'의 투트랙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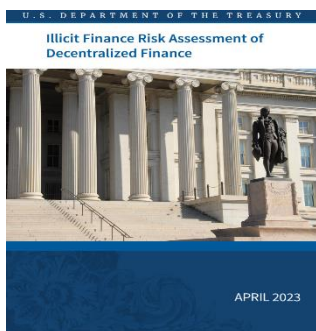
디파이-레이어2 리스크 부각 — 규제 기반 인프라 선호도 강화

테라-루나 사태 : 알고리즘의 붕괴와 규제 공백의 대가

2022년 5월 발생한 테라-루나(Terra-Luna) 사태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취약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사건이었다. 연 20%에 달하는 고정 이율을 제공하던 앵커프로토콜은 예치 수요가 대출 수요를 압도하는 불균형 속에서 지급준비금 고갈과뱅크런을 초래했고, 단 며칠만에 만에 시가총액 수십조 원이 증발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사건은 디파이(DeFi) 시장의 소위 머니 레고(Money Lego) 구조가 기초 자산의 신뢰 없이는 얼마나 쉽게 연쇄 붕괴할 수 있는지를 증명했다. 특히 금융당국의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실패는 제도적 통제 장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과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출범 등 규제 인프라 구축의 직접적인 트리거로 작용했다.

브릿지(Bridge)와 레이어2(L2): 기술적 확장성과 보안의 딜레마

블록체인 생태계의 확장을 주도했던 크로스체인 브릿지와 레이어2(L2) 솔루션 역시 보안 및 거버넌스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로닌(Ronin)과 웜홀(Wormhole) 브릿지 해킹 사례에서 보듯, 서로 다른 체인을 연결하는 브릿지는 막대한 자금이 묶여 있는 반면 보안 감사와 운영 주체는 불분명해 해커들의 집중 타겟이 되어왔다. 또한, 이더리움 확장성 해결의 열쇠로 꼽히는 레이어2 솔루션조차 '중앙화 된 시퀀서(Centralized Sequencer)'와 '소수에게 집중된 업그레이드 권한' 문제로 인해 "무늬만 탈중앙화"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미국과 EU 규제 당국이 보고서를 통해 "L2는 기술적으로 CEX와 유사한 운영 위험을 내포한다"고 지적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기술적 완결성보다 운영 주체의 명확성과 통제 구조가 리스크 관리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 in many cases a small number of persons may be able to exercise a high degree of control even if the governance structure purports to be decentralized”

(보고서는 "탈중앙화를 표방하더라도 실제로는 소수가 통제권을 가진 경우가 많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함)

Figure 5 미 재무부(U.S. Treasury)의 2023년 디파이 리스크 평가 보고서
 (Source: U.S. Treasury, Illicit Finance Risk Assessment of Decentralized Finance, April 2023)

신뢰의 기준이 된 컴플라이언스 — 규제 기반 인프라의 구조적 우위

'규제 회피' 모델의 몰락과 기관의 선택 변화

지난 수년간 글로벌 시장을 강타한 FTX 파산, 바이낸스의 AML 위반, 대형 브릿지 해킹 사태는 규제 밖 서비스의 구조적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내부통제 미비, 불투명한 자금 흐름, 운영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등 공통적으로 노출된 리스크들은 "규제를 회피하는 모델은 더 이상 혁신이 아닌, 관리 불가능한 위험 요소"라는 인식을 시장에 각인시켰다. 이에 따라 은행, 핀테크 등 기관 투자자들은 파트너십 선정 시 기술적 우위보다 자산 보관의 투명성, AML-KYC 준수, 실명계정 연계 등 통제 가능한 규제 인프라(Regulated Infrastructure) 보유 여부를 최우선 검토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선호도의 변화를 넘어, 컴플라이언스 역량이 비즈니스의 생존과 직결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한국형 포지티브(Positive) 규제 체계와 VASP의 희소성

이러한 글로벌 흐름은 한국 시장에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은 특금법을 기반으로 한 엄격한 포지티브 규제 체계를 도입하여, VASP인가를 단순한 영업 허가증이 아닌 강력한 신뢰의 지표로 격상시켰다. 국내 VASP 인가 체계는 고객 예치금 분리 보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구축 등을 의무화하여 FTX식 모델 해저드를 구조적으로 차단한다. 2025년 8월 기준, VASP 신고수리를 완료한 사업자가 27곳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 진입장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방증한다. 특히 2023년 신규 인가 사례가 드물었던 환경 속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2024. 7.)에 발맞춰 고도화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입증하며 시장에 진입한 사례들은 그 자체로 차별화된 가치를 지닌다. 최근의 VASP 인가 과정은 단순 요건 충족을 넘어 이용자 보호와 내부통제 중심의 검증이 대폭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점에 진입한 사업자들은 설립 초기부터 높은 수준의 운영 투명성과 규제 대응 역량을 내재화하게 되며, 이는 향후 제도권 시장에서의 장기적인 경쟁 우위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Buy or Partner: 기업 진출의 유일한 해법이 된 VASP 협업

금융사와 대기업이 디지털 자산 시장 진입을 타진할 때, 자체적인 라이선스 취득은 최소 2~3년의 시간과 불확실한 규제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고비용 전략이다. 따라서 이미 인가와 내부통제 시스템 검증을 마친 기존 VASP와의 협업은 사실상 유일하고도 가장 효율적인 시장 진입 옵션으로 자리 잡았다. 글로벌 시장에서 중앙화 된 거래소들이 로컬 라이선스 확보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국내 시장에서도 '인가받은 사업자'와 '그렇지 못한 사업자'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 시장은 기술적 완성도보다 규제 준수 역량이 시장 지배력을 결정하는 컴플라이언스 우위 국면에 진입했다.

[Outlook] 규제 중심 시장에서 VASP 라이선스 = 장기 경쟁력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이제 규제 준수는 기술적 혁신만큼이나 중요한 핵심 경쟁력으로 격상되었다. 과거에는 속도와 확장이 우선시되었다면, 현재는 VASP 인가가 시장 진입을 위한 필수 조건이자 기관 투자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신뢰의 증명으로 기능하고 있다. 단계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필두로 한 전통 금융권(TradFi)의 자금 유입이 지속됨에 따라 이들 자금을 수용할 수 있는 규제 기반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즉각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중기적으로는 국내 규제 체계가 고도화되면서 금융사 및 대기업의 VASP 협업 모델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전망이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EU(MiCA), 미국(GENIUS Act), 한국(관련 법안) 등 주요국의 규제 환경이 상호 동조화되는 국면에서, 이러한 포지티브 규제 표준을 선제적으로 내재화한

인가 사업자가 구조적 우위를 점하며 경쟁력을 확대할 것이다.

거시적 흐름 속에서 향후 한국 디지털 자산 산업은 철저히 인가 기반 사업자를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글로벌 규제 강화, 기관 자금의 유입, 그리고 국내의 확고한 포지티브 규제 환경이 맞물리면서, VASP 인가 보유 여부가 사업 확장의 출발점이자 성패를 가르는 척도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기관, 대기업, 핀테크 기업은 자체적으로 막대한 규제 리스크와 비용을 부담하기보다, 인가, 수탁, 내부통제 체계가 이미 검증된 파트너와 협업하는 효율적 전략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적 혁신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를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로 실현하기 위한 필수 전제는 제도적 정당성 확보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시장 환경에서 VASP 인가는 단순한 허가증을 넘어, 기업의 장기 생존과 성장을 결정짓는 대체 불가능한 핵심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하게 될 것이다.

준법감시 심의필 제 20251204-Cpi-001호 (2025.12.04. ~ 2026.12.03.)

Contact Us | 문의처

Partnership 및 Listing 관련 문의는 아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Partnership 관련 문의 : partnership@inexkr.com

Listing 관련 문의 : listing@inexcoin.com

Disclaimer | 면책조항

본 자료는 투자자 및 파트너의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자산의 매수매도를 권유하거나 투자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료에 포함된 정보와 수치는 당사가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공개 자료와 리서치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그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나 수익률은 미래 성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디지털 자산 투자에는 원금 손실을 포함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 자료에 기반한 투자 결정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당사는 본 자료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작성자의 독립적인 분석에 따른 것이며, 당사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INEX에 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복사, 배포, 전재할 수 없습니다.